

5주차 - Neural Networks : Learning

<Cost Function and Backpropagation>

1. Cost Function

- * L = total number of layers in the network
- * s_l = number of units (not counting bias unit) in layer l
- * K = number of output units/classes

인공신경망에서 K클래스의 다범주 분류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.

$$J(\Theta) = -\frac{1}{m} \sum_{i=1}^m \sum_{k=1}^K \left[y_k^{(i)} \log((h_{\Theta}(x^{(i)}))_k) + (1 - y_k^{(i)}) \log(1 - (h_{\Theta}(x^{(i)}))_k) \right] + \frac{\lambda}{2m} \sum_{l=1}^{L-1} \sum_{i=1}^{s_l} \sum_{j=1}^{s_{l+1}} (\Theta_{j,i}^{(l)})^2$$

이것을 multiclass classification에서 one-vs-all 예측법과 헷갈리면 안된다.

one-vs-all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동시에 비용함수를 구하는 것이 아닌,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진 분류를 마친 뒤에 hypothesis를 구한 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다면, 인공신경망(NN)에서는 애초에 전 클래스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.

-> 참조

<https://www.coursera.org/learn/machine-learning/discussions/weeks/5/threads/WmCWI7CPEeaTRBLTy5Qz8A>

Note

- * the double sum simply adds up the logistic regression costs calculated for each cell in the output layer
- * the triple sum simply adds up the squares of all the individual Θ s in the entire network.
- * the i in the triple sum does not refer to training example i

2. Backpropagation Algorithm

역전파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의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다. 즉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.

$$\min_{\Theta} J(\Theta) \quad \frac{\partial}{\partial \Theta_{i,j}^{(l)}} J(\Theta)$$

대략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.

Backpropagation algorithm

→ Training set $\{(x^{(1)}, y^{(1)}), \dots, (x^{(m)}, y^{(m)})\}$

Set $\Delta_{ij}^{(l)} = 0$ (for all l, i, j).

(used to compute $\frac{\partial}{\partial \Theta_{ij}^{(l)}} J(\Theta)$)

For $i = 1$ to $m \leftarrow (x^{(i)}, y^{(i)})$.

Set $a^{(1)} = x^{(i)}$

Perform forward propagation to compute $a^{(l)}$ for $l = 2, 3, \dots, L$

Using $y^{(i)}$, compute $\delta^{(L)} = a^{(L)} - y^{(i)}$

Compute $\delta^{(L-1)}, \delta^{(L-2)}, \dots, \delta^{(2)}$

$\Delta_{ij}^{(l)} := \Delta_{ij}^{(l)} + a_j^{(l)} \delta_i^{(l+1)}$

$\delta^{(l)} := \delta^{(l)} + \delta^{(l+1)} (a^{(l)})^T$

→ $D_{ij}^{(l)} := \frac{1}{m} \Delta_{ij}^{(l)} + \lambda \Theta_{ij}^{(l)}$ if $j \neq 0$

→ $D_{ij}^{(l)} := \frac{1}{m} \Delta_{ij}^{(l)}$ if $j = 0$

$$\frac{\partial}{\partial \Theta_{ij}^{(l)}} J(\Theta) = D_{ij}^{(l)}$$

2 ~ L-1 층까지 델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.

$\delta^{(L-1)}, \delta^{(L-2)}, \dots, \delta^{(2)}$ using $\delta^{(l)} = ((\Theta^{(l)})^T \delta^{(l+1)}) .* a^{(l)} .* (1 - a^{(l)})$

로지스틱 회귀와는 다르게 가중치가 3차원이라 식이 매우 복잡하다. 구체적인 흐름은 아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. 하지만 결국 위 과정은 비용함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중치에 대한 비용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일 뿐이며, chain rule을 이용하여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간편하게 도함수를 구하는 것 뿐이다.

chain rule :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Chain_rule

구체적 증명 : [Backpropagation : process](#)

첨언하자면, 여기서 big delta는 결국 시그마를 달리 표현한 것과 다름 없다. 로지스틱 회귀에서 시그마 (1~m)이 같은 역할을 한다. 결국 각 example에 대하여 비용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여 모두 더한 뒤 평균을 내는 것이다.

로지스틱 회귀는 theta의 변화가 바로 비용함수에 영향을 미친다. 하지만 인공신경망은 input layer의 theta가 다음 활성화 unit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활성화 유닛과 그 층의 theta는 다시 다음 층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. 따라서 비용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도 층마다 스텝을 거쳐야한다. 이것이 바로 오차 역전파의 핵심 흐름이 아닐까 싶다.

<Backpropagation in Practice>

1. Unrolling Parameters

로지스틱 회귀와 다르게 인공신경망의 theta와 gradient descent는 vector가 아닌 matrix이다.

따라서 비용함수를 최소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matrix를 vector로 변환하여 주어야한다.

-> theta와 gradient의 층마다 matrix의 size가 달라서 하나의 matrix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.

이 과정을 'unrolling Parameters'라고 한다.

- unroll

```
thetaVector = [ Theta1(:); Theta2(:); Theta3(:); ]
deltaVector = [ D1(:); D2(:); D3(:) ]
```

- roll

```
Theta1 = reshape(thetaVector(1:110),10,11)
Theta2 = reshape(thetaVector(111:220),10,11)
Theta3 = reshape(thetaVector(221:231),1,11)
```

전체적인 알고리즘 사용법

Learning Algorithm

- Have initial parameters $\Theta^{(1)}, \Theta^{(2)}, \Theta^{(3)}$.
- Unroll to get `initialTheta` to pass to
- `fminunc(@costFunction, initialTheta, options)`

```
function [jval, gradientVec] = costFunction(thetaVec)
    From thetaVec, get  $\Theta^{(1)}, \Theta^{(2)}, \Theta^{(3)}$ .
    Use forward prop/back prop to compute  $D^{(1)}, D^{(2)}, D^{(3)}$  and  $J(\Theta)$ .
    Unroll  $D^{(1)}, D^{(2)}, D^{(3)}$  to get gradientVec.
```

<Gradient Checking>

$$\frac{\partial}{\partial \Theta} J(\Theta) \approx \frac{J(\Theta + \epsilon) - J(\Theta - \epsilon)}{2\epsilon}$$

아주 작은 값(엡실론)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진다.

이를 이용하여 오차역 전파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 지 알 수 있다.

만약 오차역 전파 알고리즘이 잘 작동한다면 오차역 전파로 구한 gradient와 이 값이 거의 일치할 것이다.

theta가 매트릭스일 경우 unroll 과정을 거쳐서 각 요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$$\frac{\partial}{\partial \Theta_j} J(\Theta) \approx \frac{J(\Theta_1, \dots, \Theta_j + \epsilon, \dots, \Theta_n) - J(\Theta_1, \dots, \Theta_j - \epsilon, \dots, \Theta_n)}{2\epsilon}$$

```
1  epsilon = 1e-4;
2  for i = 1:n,
3      thetaPlus = theta;
4      thetaPlus(i) += epsilon;
5      thetaMinus = theta;
6      thetaMinus(i) -= epsilon;
7      gradApprox(i) = (J(thetaPlus) - J(thetaMinus))/(2*epsilon)
8  end;
9
```

gradient checking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check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.

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방식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. 몇가지 예시로 테스트를 해보고 gradient가 잘 작동하는 것 같으면 테스트를 그만하고 학습을 시작하면 된다.

참고 : 왜 gradient checking이 오차역전파를 증명해줄 수 있는가?

답 : gradient checking에서 쓰는 평균변화율이 엡실론이 작을 경우 순간 변화율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값이 될 자격이 있다.

<https://www.coursera.org/learn/machine-learning/discussions/weeks/5/threads/XFofPueaEeiCnxJgKwvJrA>

참고 : 오차역 전파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gradient checking이 필요한 것인가?

답 : 비용함수나 활성화함수의 구현에 따라서 혹은 단순 코딩 상 버그로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오류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.

<https://www.coursera.org/learn/machine-learning/discussions/weeks/5/threads/W2WFeIX9Eei3XQ6UbYvWCA>

<Random Initialization>

random Initialization은 초기 parameter theta를 랜덤한 값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이름을 들어보면 진화적으로 합리적인 초기값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theta안의 요소 값이 모두 같을 때 각 층의 모든 unit은 같은 활성화 값을 가지게 되고,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오차역 전파과정에서 delta값도 모든 unit이 같게 된다. 이는 곧 gradient descent를 한번 실행했을 때 theta의 변하는 정도가 각 층 모든 unit이 같다는 것. 이것은 결국 각 층의 unit들이 차별화되지 못 한다는 것이고 불필요한 특징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. 따라서 random initialization은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.

Random initialization: Symmetry breaking

→ Initialize each $\Theta_{ij}^{(l)}$ to a random value in $[-\epsilon, \epsilon]$
(i.e. $-\epsilon \leq \Theta_{ij}^{(l)} \leq \epsilon$)

E.g.

→ $\text{Theta1} = \text{rand}(10, 11) * (2 * \text{INIT_EPSILON}) - \text{INIT_EPSILON};$ $[-\epsilon, \epsilon]$

→ $\text{Theta2} = \text{rand}(1, 11) * (2 * \text{INIT_EPSILON}) - \text{INIT_EPSILON};$

```
1 If the dimensions of Theta1 is 10x11, Theta2 is 10x11 and Theta3 is 1x11.  
2  
3 Theta1 = rand(10,11) * (2 * INIT_EPSILON) - INIT_EPSILON;  
4 Theta2 = rand(10,11) * (2 * INIT_EPSILON) - INIT_EPSILON;  
5 Theta3 = rand(1,11) * (2 * INIT_EPSILON) - INIT_EPSILON;  
6
```

<Putting it together>

First, pick a network architecture; choose the layout of your neural network, including how many hidden units in each layer and how many layers in total you want to have.

- * Number of input units = dimension of features $x(i) \times x(i)$
- * Number of output units = number of classes
- * Number of hidden units per layer = usually more the better (must balance with cost of computation as it increases with more hidden units)
- * Defaults: 1 hidden layer. If you have more than 1 hidden layer, then it is recommended that you have the same number of units in every hidden layer.

Training a Neural Network

1. Randomly initialize the weights
2. Implement forward propagation to get $h_0(x(i))$ for any $x(i)$
3. Implement the cost function
4. Implement backpropagation to compute partial derivatives
5. Use gradient checking to confirm that your backpropagation works. Then disable gradient checking.
6. Use gradient descent or a built-in optimization function to minimize the cost function with the weights in theta.

-참고-

인공신경망에서 비용함수는 일반적으로 볼록함수라고 확정할 수 없다. 따라서 단순히 local minimum을 찾을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다.